지금 임마누엘에 응답하라

(이사야 10:1~34)

20.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1.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23.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지금 임마누엘에 응답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지금 임마누엘에 응답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역사적 사건은 한 번 일어났지만, 신앙적으로는 반복해서 일어나야 하는 신앙사건입니다.
'신앙 사건'이란 시간을 초월하여 지금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임마누엘의 역사적 사건은 지금 나의 사건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임마누엘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이해하기 좋습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해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사건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열애 중인 연인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애인이 인생이고 삶입니다. 한편 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는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것이 인생이고 삶이 됩니다. 한편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사업하는 아빠는 사업이 인생이고 삶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삼라만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사업가일지라도 나의 할 일은 내게 오신

하나님께 지금 응답하는 것이 삶의 내용이 됩니다. 엄마는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도 내게 오신 하나님께 지금 응답하는 것이 삶의 내용이 됩니다. 열애 중인 연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임마누엘에 대한 응답이 삶의 내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사건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모두가 바른 응답을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임마누엘 사건에 대한 응답의 유형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 이스라엘 유형이 있고, 둘째는 앗수르 유형이 있고, 셋째는 남은 자, 즉 피난한 자의 유형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유형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와 둘째는 제대로 된 응답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응답이 아니니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반응과 한 가지 올바른 응답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북 이스라엘 유형이나 앗수르 유형은 단순히 나라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사건에 반응하는 유형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상징입니다. 바른 응답의 예시인 남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선민들만으로 보자면 북 이스라엘 유형과 남은 자 유형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굳이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남 유다에 살던 백성들 중에서도 임마누엘에 대한 응답이 옳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 유다에 살면서도 북 이스라엘 유형의 사람이 있었고, 북 이스라엘에 살면서도 남은 자 유형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앗수르 유형은 선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보았던 임마누엘 사건에 대한 예언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메시아이신 아기의 탄생으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서 광명과 자유와 즐거움의 삶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아기에 대한 태도가 곧 임마누엘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응답일 때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진행되던 삶이 광명과 자유의 삶이 되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북 이스라엘의 부패상에 대한 고발과 경고와 심판의 예언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북 이스라엘의 부패상을 지적하고 심판이 주어질 것을 예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예언의 연장선상에서 특정한 응답 유형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 이스라엘 유형은 선민들 중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유형 중의 하나입니

다.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북 이스라엘 유형은 이렇게 구원을 받은 남은 자 유형을 제외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남 왕국과 북 왕국으로 갈라질 때에 성전은 남 왕국에 있었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절기가 되면 선민들이 남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을 두려워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단과 벧엘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 조상을 출애굽 시키고 또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복지로 입성하게 했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북 이스라엘 유형은 선민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에 성전을 생활화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성전을 생활화하는 것은 곧 상번제가 드려짐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일 년 된 어린 양을 바치는 상번제가 드려졌습니다. 전국각지에 흩어져 살던 선민들은 성전의 번제단에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양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죽음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사야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였지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된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 사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므로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성전의 번제단과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북 이스라엘 유형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는 길은 육체로 접하는 이 세상의 어떤 사건이나 대상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여 더 크게 더 중요하게 체감함으로써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연인이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에게 몰입하다가 결혼하여 아기가 생기면 모든 관심이 아기로 옮겨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에 대한 바른 응답은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심방을 오신다고 하면 만사를 젖혀두고 그 일정에 모든 것을 맞춥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오신다면 모든 것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을 제일 크고 중요하게 체감하는 것이 바른 응답입니다. 그럴 때에 사소하게 여겨서 제쳐놓은 이 세상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재응답이 나타납니다.
성전을 생활화해야 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를 마음으로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이론적으로는 보잘 것 없는 이 세상일들이 내 마음에서는 크고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론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마음을 끊임없이 죽이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고 성전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의 존재 의미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지금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북 이스라엘에는 이 성전이 없었습니다. 선민임에도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곧 성전의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뜻합니다. 물론 남 왕국 유다에서도 이런 자들은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면서도 진정한 성전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전과 제사의 의미를 오해하여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일을 우선시해서 크고 중요하게 인정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혹은 금송아지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듯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사야는 이들의 결국은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앗수르 유형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앗수르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당시에 앗수르는 강대한 국력과 군사력으로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른 채 교만하였기에 앗수르 또한 침략 당해 망하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여기에서 임마누엘에 대한 이방인들의 반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3절을 보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앗수르의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15절을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막대기나 도끼, 톱 같은 도구로서 사용하셨는데 이 도구인 앗수르가 교만함으로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앗수르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앗수르가 강해지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심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응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사건은 선민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모르거나 무관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메시아 강림에 대한 일종의 반응이 됩니다. 스스로 괄목할만한 승리와 업적을 이루었다고 여겼던 앗수르의 응답이 그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포함되는 유형이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밖의 사람들을 도구로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도구로 사용되는 자들이 스스로를 대단하다 여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세상적인 시선에서 세상의 중심은 선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중심점에 선민들을 두고 계십니다.
그 선민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삶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민들을 중심점으로 삼으시고 그 외의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 주관해나가십니다. 그때에 이들은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놀랄만한 성취와 업적을 이루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없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앗수르처럼 다른 나라를 짓밟거나 무찌르지 않더라도, 칭송받는 성인들이나 사상가들의 업적이나 삶조차도 하나님에 손에 들린 도끼이고 톱이고 막대기일 뿐입니다. 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일을 이루었다고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소모품으로 여겨서 폐기처분 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성공의 내용물과 업적의 내용물과 성취의 내용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북 이스라엘의 유형과 남은 자 유형의 차이점이 이와 같습니다. 남은 자 유형의 참 선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 일어났으므로 앗수르 유형의 사람들처럼 특정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한편 선민들 중에 북 이스라엘 유형은 여기에 종교를 가미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중에 자기의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라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 유형의 참 선민들에게 삶의 과제는 어떤 성공을 이루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사건이 되신 임마누엘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 삶의 과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 유형에서 보이는 바른 응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에 바르게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체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생겨나고, 삶에는 하나님의 재응답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취물들이 생겨나겠지만 결코 스스로 주관자가 되어서 이루고자 매진하지는 않습니다.
20절에서는 참 선민의 모습을 남은 자 혹은 피난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앗수르를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로 여겼습니다. 이 세상의 사건들은 쓰나미처럼 마음을 휩쓸고 내려갑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일들이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남북문제, 북미문제, 경제문제가 그럴 수 있고 좁은 범위에서는 집안문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 유형의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

가를 생활화하며 죽은 자로 여깁니다. 간단히 말해 세상의 일들에 마음이 휩쓸려가지 않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절박하게 체감하는 자들입니다.
'피난한 자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일들이 내 마음을 휩쓴다는 것은 곧 마음을 집어삼키겠다는 공격입니다. 이 땅위에서 벌어지는 일이 크고 중요하게 느껴질수록 공격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세상의 일들은 그 크기를 비교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가정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오신 사실과 비교한다면 사소할 뿐입니다. 피난한 자는 이러한 세상의 공격에 먹혀버린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BC.701년 히스기야 왕 때에 앗수르의 산헤립 왕이 남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가 초토화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번제단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곧 산헤립의 침공에 의해 점령당한 마음을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고 결국 산헤립보다 하나님을 크게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결과로 하룻밤 사이에 산헤립의 십팔만 오천 명이 전멸하는 하나님의 재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위기가 나라나 집안에 대한 걱정 같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론으로만 머물지 않고 체감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더 크고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남은 자 유형의 사람이 되어서 임마누엘에 올바르게 응답하면, 위기상황의 세상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재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생의 내용물은 언제나 지금의 사건으로 내게 응답을 요구하는 임마누엘에 대한 남은 자, 피난한 자 유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삶이 급물살처럼 내 마음을 향해 와서 휩쓸어 가려 할 때에 남은 자가 되고 피난한 자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먹힐 수밖에 없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이고 크고 중요하게 체감함으로써 하나님의 재응답이 이끌어 가시는 복지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